

광주FC 역대급 흥행에도 외면받는 월드컵경기장

누적 관중 20%↓…편의시설 부재·매점 유찰 반복
“계속 머물 이유 없다”…광주시 “시설 개선 계획 중”

프로축구 광주FC가 K리그와 아시아 무대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지역 스포츠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관중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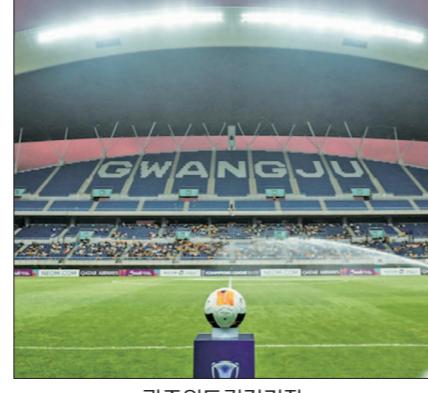
먹거리와 휴식 공간, 어린이 센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대체로 갖춰지지 않아 ‘흥행과 현장 환경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FC는 2010년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 설립과 함께 창단한 뒤 지난해 단일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을 세우며 지역 스포츠 흥행을 주도했다. 올해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코리아컵 준우승 등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기 외적인 지표는 정반대 흐름이다. 지난해 10만1000여명이던 흠 누적 관중은 올해 8만4000여명으로 20%가량 감소했다. 관중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는 ‘편의시설 부재’가 꼽힌다.

특히 2020~2024년 사용했던 광주축구



전용구장에서는 매점과 다양한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관중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월드컵경기장으로 이동한 올해는 회장실을 제외하면 시설 개선이 사실상 멈춰 상태다.

컵라면과 과자 정도를 파는 매점조차 적은 영업일수와 짧은 경기 시간으로 수익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다른 K리그 구장처럼 푸드트럭이나 팬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 간식 하나 사려면 경기장 밖 롯데마트까지 가야 한다”며 불편을 토로한다.

여기에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구조적 한계인 ‘과도한 규모의 관중석’과 관람하기에 ‘너무 면 시야’ 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인 광주시와 시체 유희 등의 관심 부족이 결국 구단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K리그는 팬 경험이 곧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금처럼 광주FC의 인기와 성적이 절정일 때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관중 회복 가능성 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어 “울산HD 흉구장처럼 단기간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편의시설부터 긴급 도입하고, 내년 시즌 개막 전까지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월드컵경기장에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만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개막 시즌에 맞춰 먹거리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할 계획이며 광주FC와 협의해 관중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북구 ‘일곡생활문화·돌봄센터’ 조성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문화·육아 친화 공간

광주 북구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가 주민 문화생활과 아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일곡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북구 설죽로 523)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용·우산·운암동에 이어 북구에서 4번째로 조성된 생활문화거점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과거 일곡동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우체국이 지난 2020년 6월 업무를 종료한 이후 유휴 공간을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2022년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필요 지원을 확보하는 등 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구는 총 30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

입해 옛 우체국 부지를 지상 2층, 연면적 757.57㎡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1층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약기 연주와 노래 연습이 가능한 ‘방울공간’, 춤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마루공간’,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위한 ‘학습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공식 행사는 일곡동이 광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인 점을 반영해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테마로 기획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도 남구 가수다 17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유품호 남구TV 찾아가는 노래자랑 ‘나도 남구 가수다’ 연말 결선에 참가한 허덕동 남구시니어클럽 김유태 어르신이 ‘모란동백’을 부르고 있다. ‘청부녀’를 부른 대총동 섬김과 나눔회 한미애 어르신이 대상, ‘오늘은 고백한다’를 부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이창진 어르신이 최우수상을, ‘정이 전부야’를 부른 남구노인복지관 장숙자 어르신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기남 기자

“건설사고 재발 막는 안전대책위 구성해야”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부실 시공·관리 책임 실체 밝혀야”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침몰 규탄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건설지부 등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침몰 규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이나 형식적 대책에 머물러서 안 된다”며 “노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중 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은 일회성 점검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술 취해 터미널서 행패·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순천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2시 30분 순천 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

에서 승무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바꿔 신

고 달아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된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순천·부침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생애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며 “이번 사고는 결코 예측 불가능한 우연이 아니다. 광주시의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붕괴돼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부실 시공과 관리 책임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건설 현장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은 일회성 점검

이나 형식적 대책에 머물러서 안 된다”며 “노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중 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재발 방지 대책은 일회성 점검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설치…항소심도 ‘공방’

장애인 “승강장도 설치” vs 운송업체 “경영상 부담”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

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 은 차별’이라며 운수업체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 최장훈 재판장은 장애인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을 열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 는데 금호익스프레스와 광주시가 ‘장애 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탑승 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

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 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제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에 나선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주장했고,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장애

스의 일정 비율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프트를 설치, 2040년까지 모든 신규 도입분에 리프트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버스 승강장에도 리프트를 설치해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터미널운영권이 광주전남지부로 넘어갔다 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는 터미널운영권이 실제 광주전남지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자며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또 1심에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경 영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리프트 설치 대상에서 ‘우등’은 제외하고 ‘일반’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철거되는 좌석 비율을 일반 15%, 우등 25%로 각각 추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인정한 고속시외버스가 원고들이 이용해야 하는 노선과 관련돼 있는지 기록을 찾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은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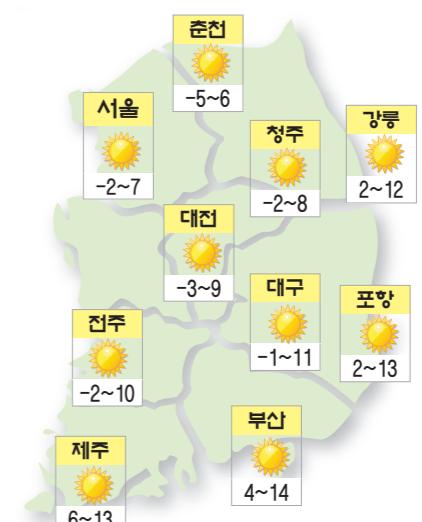
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데 현 재로선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내년 3월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광주장애인차

오늘의 날씨

해물 07:35 06:00
해진 17:23 15:38



광주	0~11
목포	0~9
여수	2~11
순천	-1~12
구례	-2~12
광주	-1~11
함평	1~11
목포	6~9
여수	-2~13
진도	1~10

미세먼지
악화当中!

구례

광주

함평

여수

진도

목포

여수

여수

여수

여수

여수

여수